

광주에 온 '북한 집체화'



오는 9월 7일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에서 선보일 북한 집체화 설치 작업이 22일 전시공간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에서 진행됐다. <광주비엔날레 재단 제공>

광주비엔날레 '북한미술: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 설치 중...최창호 인민예술가 작품 등 22점

2018광주비엔날레 주제전 중 하나인 '북한미술: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전에서 선보일 집체화 등 북한 미술 작품 설치가 광주에서 진행 중이다.

7월 말부터 항공으로 반입된 작품은 서울의 권위 있는 문화재단연구소에서 배접 과정을 거쳐 광주로 운송됐다. 현재 전시 공간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문화창조원 6관에서 대형 집체화 6점을 포함한 북한 조선화 22점에 대한 표구와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45% 가량 작업이 진행된 상태며 표구와 설치 과정의 난이도가 높아 8월 말까지 모든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차례 평양을 방문한 북한미술 권위자 문범강 큐레이터(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수 겸 작가)가 기획한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대부분 평양 만수대장작사에서 창작된 그림으로 북경 만수대장작사 미술관 소장품 15점, 국내 개인 및 미술관 소장 3점, 워싱턴 예도예술재단 소장품 중 4점 등을 문 교수가 선별했다. 북한 최고의 작가로 꼽히는 최

창호 인민예술가, 김인석 공훈예술가 등 32명이 참여하며 평양 만수대장작사에서 제작한 4-5m 폭의 대형 집체화는 대부분 최초로 공개되는 것들이다.

최창호 작가 등 북한 미술가 초청 건은 북한쪽에서 아직 회신 없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총 43개국 165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2018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은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지에서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



김철 작 '눈속을 달리는 밤' (왼쪽)과 김성민 작 '어머니, 맥내가 왔습니다'



발레, 클래식을 만나다

광주여성필·그린발레단 합동 공연...25일 광산문화회관



발레와 클래식이 만난다.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사진)는 오는 25일 오후 5시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49회 정기연주회 '댄스 스토리 인 뮤직'을 연다.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주시, 광주문화재단, 광산구청이 후원하는 2018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세상의 모든 음악' 세 번째 기획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그린발레단과 호흡을 맞춰 400여 년의 춤곡 역사를 따라 해설과 영상과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2016년 오스트리아 빈 무지페어라인 황금홀에서 데뷔 무대를 가진 박승유씨가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해설은 조가영 그린발레단 부예술감독

이 맡았다. 스트라빈스키의 '폴치넬라 모음곡' 중 '신포니아'로 서문을 열고 요한슈트라우스의 '비엔나의 기질',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2번&8번' 등을 무대에서 연주한다. 그린발레단 단원 오다현, 정유진, 조정운, 이예진씨는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중 '네 마리 백조의 춤'과 '월츠'에 맞춰 열연한다. 조성미 광주시립발레단 차석단원은 파야의 오페라 '허무한 인생' 중 '스페인 무곡'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관람료는 무료로 공연에 만족한 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문의 062-960-8989.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최진석 교수 '빛고을 철학강의' 9월 2일 개강

'인간적인 삶' 주제 조선대서 6회

철학자 최진석 강명원장(전 서강대 철학과 교수·사진)이 광주에서 '빛고을 철학강의'를 진행한다.

참배물터가 주최하는 최원장의 연속강의는 지난 6월에 이어 두번째다. 최 원장은 '탁월한 삶, 탁월한 사유'를 주제로 '인간의 독립', '인간, 신으로부터 벗어난 후 신이 되어가는 과정' 등 5개 강의를 진행했다. 지역에서 최 교수가 연속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 당시 비움박물관에서 열렸던 행사는 평균 15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고 그 열기가 이번 기획으로 이어졌다.



'인간적인 삶'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의는 '확장', '독립', '모험', '추상', '배움', '감동' 등 모두 6강으로 이뤄진다. 지난 강의의 심화 과정으로 실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오는 9월2일부터 10월21일(23일, 10월 14일 강의 없음)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조선대학교 서석홀 4층 대호전기실에서 열리며 참가비는 회당 1만원(청소년·대학생 5000원)이다. 사전접수 010-9601-8188. /김미은 기자 mekim@

광주시립미술관장 공모 17:1

지역 예술계의 관심을 모았던 광주시립미술관장 공모에 모두 17명이 응모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난 20-22일 3일간 모두 17명이 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시는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하며 9월 4일 면접 심사 후 오는 9월 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서류접수 전부터 광주시립미술관장 자리에 자천타천 20명이 넘는 인물군이 후보로 오르내리며 관심을 모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문예창작교실 9월 4일 개강

서은문명란연구소

(사)서은문명란연구소(이사장 황일봉)가 가을학기 문예창작교실을 개강한다. 오는 9월4일(오후2시) 첫 강의를 시작으로 12월11일까지 모두 15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 진행되며 강의 장소는 광주시 동구 대인동 기아자동차 3층이다.

이번 문예창작교실 지도교수는 전한국시인협회 이사장 신규호(전 성결대학교 부총장)교수와 시인인 신현 충남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허형만 시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다음 학기부터 출강한다.

한편 수강료도 오는 9월 4일(오후4시) 박진찬 교수가 맡는다. 문의 062-234-8158, 010-3601-1580. /박성현 기자 skypark@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한정식 A코스 50,000 | B코스 40,000 | C코스 30,000
일품요리 굴비정식 | 삼합정식 | 떡갈비정식 | 황태찜정식 | 새우튀김정식 **22,000**

대를 이은 가족모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족 모임이 시작되는 각별한 인연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